

월간 범어교회보 Vol. 444

늘 푸른 숲

2026. 6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강림절 연합 집회 '리바이벌 2026'

리딩지저스 하나님, 저를 만나러 와 주실까요?

새가족 컨퍼런스 이제, 우리 이름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정결한 믿음의 결단 '다니엘 서약식'

마음으로 품고 무릎으로 기도드린 목양교사의 40년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이지훈 담임목사

120주년 기념 금요일예배 초청 설교자로 오신 이진영 목사님(서울 내곡교회)께서는 범어교회 120년의 역사는 산을 정복한 기록이 아니라, 광야의 길에서 우리를 안고 가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역사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우리 교회의 역사만 그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역사도,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상의 역사도,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수들을 예측할 수 없고 그렇기에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견디어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안고 계시며,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잊은 채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상황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마다 다시금 그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보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안고 오셨고, 여전히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겹고 버거운 시간들이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마주하게 되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을 열며

어느덧 유월이다. 육월이 아닌 ‘유월’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부드럽고 온화해서 좋다.

온화한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날, 출근길에 바쁘게만 마주했던 청라언덕을 올라 1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다녀왔다.

푸른 담쟁이덩굴이 무성한 청라언덕에는 푸른 눈의 선교사 주택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오래된 선교사 주택의 붉은 벽돌과 고요한 ‘은혜 정원’은 분주한 도시 한가운데서도 시간을 잠시 천천히 흐르게 한다. 낯설고 척박한 이국땅에서 향수병과 싸워가며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사들의 숭고한 삶. ‘I’m going to love them’이라는 비문 앞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선교사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떠올라 부끄러워진 마음을 애써 숨겨보기도 한다.

고등학교 시절 미션스쿨에서 하나님을 만나, 부모님 몰래 IVF 활동을 하며 교회를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온 가족이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는 가정이 가장 부러웠다. 작은 겨자씨만 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고자 애썼던 20대의 끝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고,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제는 세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만,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과연 은혜에 감격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받은 사랑만큼 누군가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품고, 복음의 씨앗을 묵묵히 심어간 선교사들의 삶, 3·1운동길에서 태극기를 품고 누구보다 앞장섰던 믿음의 선배의 삶은 결국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 준 삶’이었다. 성령강림절을 지나며 그들의 발자취를 떠올려 보며 나 역시 누군가에게 작은 성령의 바람으로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서정주 집사(교회보팀)



2026 June | Vol. 444

CONTENTS

- 02 포토에세이
- 03 목양칼럼
- 04 6월을 열며 _ 서정주 집사
- 05 목차
- 06 BOOK |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_ 최영욱 목사
- 08 행사 | 성령강림절 연합집회 ‘리바이벌 2026’ _ 김성애 집사
- 10 행사 |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_ 정진실 집사, 정혜연 성도
- 12 리딩지저스 | 매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_ 김지윤 성도
- 13 리딩지저스 | 하나님, 언젠가 저를 만나러 와 주실 거죠? _ 이은애 집사
- 14 내 영혼의 찬양 |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_ 김현주B 집사
- 16 나의 한 구절 | 장지현 집사
- 18 청년부 | 정결한 믿음의 결단 ‘다니엘 서약식’ _ 노의훈 청년
- 20 자유기고 | 코이카(KOICA)를 마치고, 강남 갔다 돌아왔어요! _ 박용수 집사
- 22 공감의 장 | 마음으로 품고 무릎으로 기도드린 목양교사의 40년 _ 김미경A 권사
- 24 인터뷰 | 상처 입은 땅에 심은 그리스도의 사랑 _ 이바울 선교사
- 27 책 소개 | 산책(冊), 우리 같이 걸을까요?
- 28 행사단신 | 5월의 범어
- 30 범어 ‘인(人)’의 얼굴 / 범어범어
- 31 범어동정 / 행사 안내

제444호 | 발행일 2026년 6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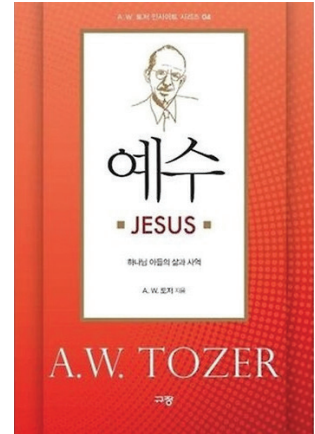
발행인 이지훈 | 편집인 권오중 | 2026년 교회 표어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주소 42083 대구 수성구 청호로84길 71 | <http://pomo.net>

Tel. 053) 667 8800 | Fax. 053) 667 8888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올해, 늘 푸른 숲의 기획도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친 A.W. 토저가 그의 영적 통찰력으로 써 내려간 책 <예수>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미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내밀하신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시길 고대합니다. 이번 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편의 예수님을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10장 44절, p86)

초대교회를 태동시키고 확장하는 데 원동력이 된 결정적 사건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강림 사건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은 제자들의 변화였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곧 성령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세례는 그리스도인이 공동체에 입문하는 외적인 의식입니다. 즉 과거의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 대하여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입문하는 의식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반면, 성령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곧 내주하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한 개인을 변화시켜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며 중생케 하시는 사역을 가리켜 성령세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나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하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먼저 성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깨우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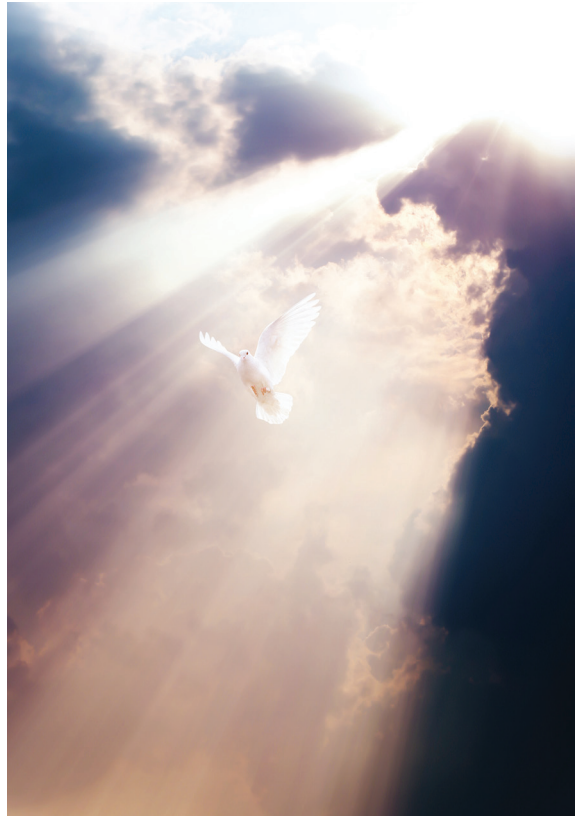
주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수많은 선택과 갈등이 있지만,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방향을 보여 주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억지나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성도가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성령님은 **연약한 성도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위로하시고,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에 성도의 신앙생활은 자신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지속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경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성령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 최영욱 목사



성령강림절 연합집회 ‘리바이벌 2026’

성령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듯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고대하며 기념하는 성령강림절을 돌아봅니다.



지난 5월 29일 금요일, 그 성령강림절을 기념하며 ‘리바이벌 2026’이라는 주제로 대구·경북 성령강림절 연합집회가 우리 교회 대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1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이번 연합집회에, 대구·경북 40여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령강림절 연합집회가 특별했던 이유는 1년에 한 번 대구·경북 40여 개 교회와 연합하여 드리는 성령강림절 연합집회였고, 무엇보다 범어교회 원로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살인 딸과 오랜만에 함께하는 예배이기도 했기에 감회가 더 새로웠습니다. 대예배실을 가득 채운 성도들은 더세움교회의 ‘더 리즌 찬양단’의 인도에 따라 성령의 오심을

기뻐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목소리로 찬양하였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는 ‘목사·사모 연합찬양대’의 특송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장영일 원로목사님께서 ‘성령 총만 받으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도전받고 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예배실을 가득 채운 성도들의 모습에 감동하였었는데, 목사님께서서는 코로나 시기 이전의 대예배실과 2층을 넘어 복도에까지 성도들로 가득했던 연합집회의 모습을 회상하시며 아쉬워하셨던 대목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어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강림절은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중요한 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지키는 절기이지만 그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회를 나서면서 "당신은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라는 질문 앞에 "네!"라고 자신이 있게 대답할 수 없었음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이 떠오르는 마음속 물음에 자꾸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이내 떠올랐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내 마음의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었던 모습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강림절 연합집회에서 받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이 없는 자처럼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나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 김성애 집사(교회보팀)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가정의 달 마지막 토요일, 새가족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성도와 동행, 교회와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새가족’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의 이름으로 함께 웃고 함께 걷어가는 동행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동행’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좋은’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집, 좋은 직장처럼요. 지난해 말, 지금의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 가족이 가장 오랫동안 마음 모아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며 행복한 추억이 많았던 저와 남편은, 우리 아이도 좋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처음 본당 문을 두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낯설었던 첫걸음부터 지금까지, 새가족부에서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는 여전히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어색했던 교회가 어느새 ‘우리 교회’로 느껴질 수 있도록, 늘 웃으며 인사해 주시고 챙겨주신 새가족부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등록 초기부터 광고를 통해 자주 접하며 기다려왔던 ‘새가족 컨퍼런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난 토요일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 간의 동행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등에 업고 걸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와 평생 함께 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제가 속했던 동행 10조 모임은 짧지만 참 따뜻했습니다. 집사님의 다정한 인도 아래, 서로가 이곳에 오게 된 과정과 삶을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워 다음 식사 약속을 잡을 만큼 벌써 정이 들었습니다.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소장 집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교회에서 사랑을 빛진 만큼, 저희 가족 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쁘게 노력하며 열심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진실 집사(디모데청년회)

새가족에서 가족으로 함께 걷는 믿음의 길!

‘새가족’이라는 이름은 언제까지 붙는 걸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더 배우고 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에 다니며 이런 막연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 ‘새가족 컨퍼런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모임을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새가족들과 교역자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컨퍼런스가 하루 행사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기도과 사랑으로 초대해주셨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서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는가이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성도와 동행, 교회와 동행이 신앙의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도 깊이 남았습니다.

강사로 오신 박성훈 목사님(서현교회)께서는 “연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함께하려는 결단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함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조별 모임에서는 반가운 성도님들과 따뜻한 교제를 나누며 어색함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심을 느끼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월부터 범어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올해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범어교회로 인도하신 시간을 돌아보며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큰 복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컨퍼런스’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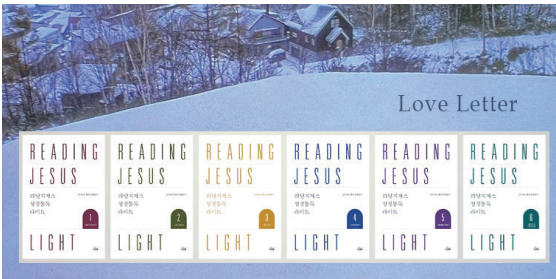
• 정혜연 성도(베드로청년회)



매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러브레터’라는 단어는 이유 없이 마음이 설레고 가슴 한 켠이 따뜻해집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1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은 언제 그런 편지를 받아봤는지, 또 언제 마지막으로 써보았는지조차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다시 그 러브레터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편지’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도 나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누워서 꿈쩍도 하기 싫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을 때,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러브레터를 듣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시간이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니,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

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가 매번 같은 죄를 반복하며 넘어질 때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은 성경 곳곳에 마치 숨은 그림처럼 담겨 있어서, 읽을 때마다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또렷하게 보이고, 어떤 날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이 늘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가는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리딩지저스’를 통해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깊이 알지 못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전쟁 같은 일상에서 성경대로 살아보려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은 늘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낙심하기보다는 ‘Not Yet’이라는 마음을 붙잡아 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믿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어 줍니다.

오늘도 저는 조용히 러브레터를 듣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전해지는 사랑의 고백을 마음에 담으며,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제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김지윤 성도(7교구 소망10 사랑방)

하나님, 언젠가 저를 만나러 와 주실 거죠?

저는 요즘 말씀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 강론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저는 하나의 소망을 위해 매일의 말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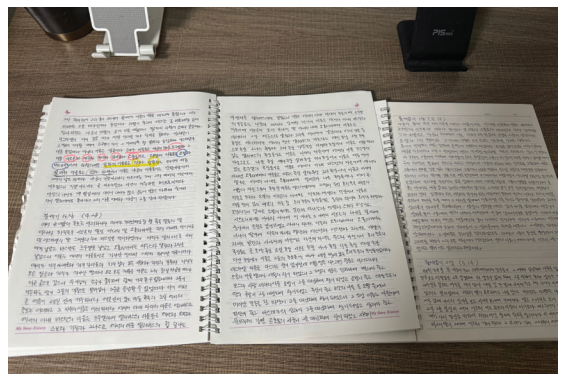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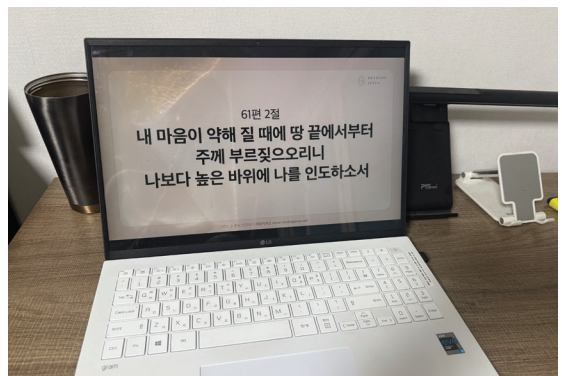
어린 시절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말씀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자라면서 세상의 지식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 여겨질 때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믿지 않는 남편이 각종 과학이론과 저명한 저자의 책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할 때는 제대로 반박할 수 없는 저의 한계를 느끼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꿈에서라도, 목소리라도, 그 어떤 작은 신호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이 너무 답답했고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나의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만나주시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러 가보자’라고 결심할 때쯤, 감사하게도 전교인 성경 읽기 ‘리딩지저스’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졸린 눈으로 성경을 읽고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 성경을 쓰고 배우느라 새벽이 되어 서야 잠을 잘 수 있지만 조금씩 성경이 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냐고 물으시면 저의 대답은 ‘아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낙심이 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4개월이 아직이라면 1년 후에, 1년 후가 아직이라면 2년 후에,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제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시며 만나러 오시겠죠? 그날을 소망하며 전 오늘도 성경을 읽고 쓰고, 배우며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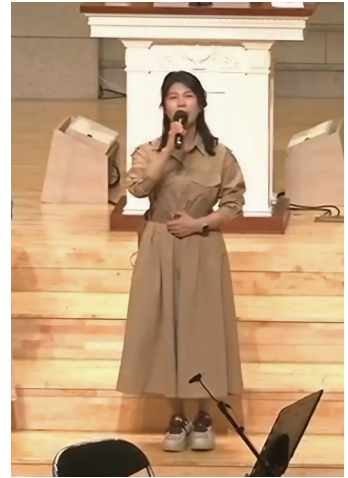
• 이은애 집사(7교구 믿음8 사랑방)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어지는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 머릿속 어느 공간에 풍금 소리가 들립니다. 발을 구르며 흘러가던 따스한 단선율, 투박하지만 정겨운 어머니의 손길로 직접 들려주시던 ‘예수 사랑하심을’ 이것이 내 영혼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일곱 살 무렵, 어머니의 찬송 사랑에서 제 피아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찬양선교단으로 섬기며 음악의 길을 걸었고,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대구에서 자취하며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며 유학의 꿈을 키웠습니다. ‘외국에서 인정받자, 할 수 있다!’ 그 목표 하나로 전 재산 450만 원을 들고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아버지의 암 투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병환은 가정을 흔들었고, 가족은 원망 속에 무너져 갔습니다.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던 그때, 저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향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그렇게 희망이 사라지고 무너지니 오히려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하며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시 빛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숨 쉬게 하셨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 스물일곱이던 1998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한 달 만에 아버지는 천국으로 떠나셨고, 이어 IMF 외환위기로 남편의 직장까지 흔들리며 아무런 대비 없이 사표를 내야 했습니다. 전세 17평이 전부였던 그 시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피아노 방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시지요? 제 이름 아시지요?” 눈물 콧물로 한 달을 기도하던 어느 날, 제 입술에서 찬양이 강같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마음을 비추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 고백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저를 비추고 계셨다는 것ですよ. 위기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이후 기도의 응답으로 동산병원에서 예배하며 일할 수 있는 축복으로 지금도 그 빛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간도 잠시, 2015년 사람의 민낯을 마주하며 깊은 상처를 입은 저는 영적 무기력함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고, 아이들 교육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대구여고 어머니 합창단 지휘를 맡아 인정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다녀온 어느 날, 목이 쉬기 시작해 3개월 만에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성대결절 수술 권유를 받았지만, 쉽사리 결정할 수 없었기에 이후 목연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과도 손짓과 메모로 대화하며, 말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말이 사라지자, 제 내면의 바닥이 더 또렷이 보였습니다.

1년여 무음의 시간 속에서 답답함이 중압감이 되어 심장이 터질 듯했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아픔이 한계에 다다를 때 저는 결국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 주세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저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요” 그 절규의 순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를 다시 일으키시고 지금까지도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 빛으로 계십니다. 폐차될 정도의 고속도로 사고의 순간에서도 뼈 하나 다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 삶은 하나님께서 빛어가는 시간인 것ですよ. 죽음조차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꿈꾸는 천국 피아노 반주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 김현주B 집사(하사모)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3~14절)



“내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의 정의이다.
조급함과 좌절감으로 기다림을 낭비하지 말자.
기다림은 삶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찾아오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기회이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라.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 마크 브로갑」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힘들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불확실한 내일과 영육의 연약함 앞에서 낙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와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며 25년의 시간을 지나야 했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으며,
한나는 눈물의 기도로 응답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였기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이란 광야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약속의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장지현 집사(하사모)

정결한 믿음의 결단 ‘다니엘 서약식’

저는 19년 동안 부모님의 보호 아래 지내왔던 미성년자에서, 주체적으로 저의 인생의 첫발을 내딛는 한 명의 성인으로서 믿음 아래 살아갈 것을 서약하는 ‘다니엘 서약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 다니엘 서약식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그날의 저의 신앙의 결단과 다짐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서약식은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서약식 중, 회중 대표로 제가 ‘다니엘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세상 속에서 정결하게 살기로 결단하였듯이, 저도 다니엘 선서를 통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아직 저에게 고등학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별로 와 닿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달라진 것이라고는 대학생이 된 것,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도 PC방에 있을 수 있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다니엘 서약식을 통해 조금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 선서 중에서 "부모님의 권유로 가는 교회"가 아닌, 자신의 신앙으로 가는 교회, 자신의 신앙으로 섬기는 하나님, 자신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선서가 많은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되었고, 제 신앙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입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서식을 마친 후에는, 목사님들의 응원 영상을 보고 멘토들의 선물과 꽃을 받았습니다. 저희를 응원해 주는 멘토들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힘

이 되었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멘토들이 있어서 든든하고, 힘들 때도 의지하고 기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Q&A를 진행했습니다. 20살 이후에 하지 않아야 할 것들과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 멘토들의 20살 시절 고민 등,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목사님들과 장로님, 부모님, 멘토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섬겨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놀기 위해서, 부모님이 보내서 교회에 오던 철부지 고등학생이 단기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제가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돌아보았을 때, 길 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으며 앞으로의 삶도 항상 하나님이 이끄시어, 결국은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 노의훈 청년(청년1부)



코이카(KOICA)를 마치며, 강남 갔다 돌아왔어요!

“정이월 다 가고 삼월이라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이 땅에도 또다시 봄이 온다네”

1928년에 발표된 ‘그리운 강남(강남아리랑)’의 일부입니다. 제비는 추위를 피해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한 동남아시아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강남은 ‘양쯔강 이남의 따뜻한 지역’을 통칭하는 말로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을 지칭합니다. 제가 베트남으로 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따뜻한 남쪽 나라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고등학교 때 슈바이처 박사의 ‘나의 생애와 사상’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은 후, 나도 슈바이처 박사처럼 개발도상국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국내 교육 5주 그리고 베트남 현지 적응 교육 8주(OJT과정 1주 포함) 등 13주의 교육과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로 다듬어 가는 과정이었다면 낯선 근무지에 도착한 이후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는 의식주와 현지 기후 그리고 현지 문화에 적응해야 했고 다음으로 대부분 시간을 혼자

지내야 하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한-베 산업기술전문대학은 1998년 한국 정부(KOICA)의 무상 원조사업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한국에 단기간의 연수 교육을 받은 분들이어서 한국인에 대한 남다른 환대와 배려 속에 지냈습니다.

하지만 업무적으로 대화가 오가고 난 후, 현지 선생님들과 일상생활을 할 때, 깊이 있는 공감의 관계로 들어갈 수 없는 관계로 늘 ‘바다 위에 떠 있는 섬’과 같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을 극복해야 했고 혼자 있음으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한 자기 부인의 삶을 늘 살아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큰 진보를 이룬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독, 침묵, 묵상식 공부, 기도, 희생적 드림, 섬김 이런 훈련 목록을 진지하게 실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혼자 있으니 자연스럽게 고독과 침묵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



사업 기증식

족한 성도 간의 교제를 보충하기 위해 베트남에 같이 간 믿음의 동기들과 매주 토요일 줌으로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나중에 이 모임을 통해 하노이에 계신 선교사의 도움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대기 순으로 읽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처음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독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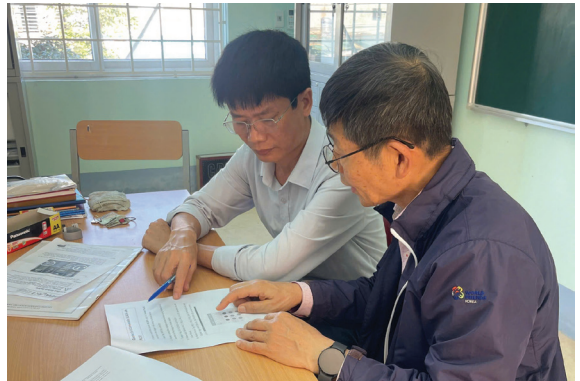
이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창 12:3)는 말씀을 붙들게 되었고 ‘내가 섬기는 한-베 산업기술대학이 오늘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루하루 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작년 5월 23일, 학교 관계자들 및 코리아 사무소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제가 추진한 산업전자과 실습실의 실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의 기증식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서 1장 2절)

이 말씀대로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박용수 집사(아곤회)



사업 인수인계와 환송식

1. KOICA(한국국제협력단) :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각종협력사업을 주관하는 외교부 산하의 준정부기관
2. 한-베((한국-베트남) 산업기술대학 : 베트남 응에안성에 위치한 공립 직업교육전문대학으로, 1998년 대한민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설립

마음으로 품고 무릎으로 기도드린 목양교사의 40년

봄의 열기가 한껏 솟다가 어느새 짙은 녹음이 이토록 생기 가득하니, 벌써 여름입니다. 이 열띤 햇살 가운데를 천천히 거닐어 보며 얼마 지나지 않은 듯한 인생길을 돌아보니, 벌써 60 고개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이는 채워지고 있으나 마음은 그리 소진되지 않은 듯함은 매 주일, 아이들과 함께한 세월의 곁이 내어주는 그들의 순수와 천진이 제게 조금은 묻어있는 까닭이겠지요.

저는 매주 범어교회 주일학교에서 소년부 5·6학년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올해로 소년부 목양교사로 섬긴 지가 40년째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세월을 돌아보는 것은 그 시간의 연수를 드러내려 함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함께 관통하시며 동행하신 하나님의 걸음의 폭이 넓고 깊으셨음을 깨닫고, 다시 붙들며 걸어가기로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믿음의 기억을 돌이켜 보면 그곳엔 늘 한 분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바로 6학년 시절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범어교회에서 은퇴 권사님으로 조용히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의 저는 그저 평범한 아이였지만 선생님의 모습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시던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조용히 믿음의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씨앗이 제 인생을 40년 동안 한 자리에 서 있게 할 줄은요.

목양교사로 섬기면서 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천식이 심해져 약 6개월 동안 소년부를 떠나 쉬어야 했던 때였습니다.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까요’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스며들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곁에 서지 못한다는 사실이 제게는 생각보다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깨닫



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사의 자리를 지켜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서 붙들고 계셨다는 것어요.

세월이 흐르며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장면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자라 결혼을 하고, 그 자녀가 다시 우리 소년부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 아이가 청년이 되어 이제는 소년부를 섬기는 교사로 서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은 이 생각으로 울컥해집니다.

‘아, 믿음은 한 사람에게 심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 사랑이 제 삶의 이유가 되었고, 그 사랑에 작은 보답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저는 오늘도 아이들 앞에 섭니다. 저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교사로 이 자리를 지켜왔을 뿐입니다. 범어교회 120년의 역사 속에서 저는 아주 작은 교실 하나를 맡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세대의 교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 다음 세대가 다시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믿음의 계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6학년 때 만났던 한 선생님의 사랑이 오늘의 저를 교사로 서게 했듯이, 제가 만난 아이들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제 자리가 허락되는 날까지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교사로 남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하신 주님의 사랑에 작게나마 보답하는 마음을 품고서 제가 오랫동안 붙잡고 살아온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오늘도 조용히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일 4:11)**

• 김미경A 권사(소년부 목양교사)



상처 입은 땅에 심은 그리스도의 사랑

6월의 푸르름이 가득한 교회보에, 멀리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의 거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한 선교사님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22년째 캐나다 원주민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이바울 선교사**. 그는 백인들의 핍박과 마약, 알코올로 얼룩진 원주민 마을에 ‘정죄’ 대신 ‘존중’과 ‘빵’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52년 전 네비게이트 선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며 품었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이제는 캐나다 원주민 지도자를 세우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고 있습니다.

“삶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한강 다리 위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저를 붙드신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으로 캐나다 원주민들의 깨어진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Q.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선교사님의 가족 소개와 함께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 반갑습니다. 저는 아내 송유순 선교사와 함께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슬하에는 3남 1녀가 있는데 어느덧 다 장성했습니다. 막내딸은 제가 52세라는 늦은 나이에 얻었는데 벌써 대학교 2학년을 마쳤으니,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저는 4대째 이어오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외할아버님이 인천에서 아펜젤러 선교사

님과 함께 교회를 창립하신 분이셨고, 보통학교 한문 선생으로 계시며 가족들을 모아 가정 예배를 드리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저의 십 대 시절은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클라리넷에 매료되어 하루 16시간씩 연습하며 세계적인 연주자를 꿈꿨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음악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Q. 그렇게 음악을 사랑하던 청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미 8군에서 근무하셨던 아버님이 퇴직금을 사기당하시면서 집안 형편이 급격히 기울었고, 더 이상 음악 공부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말씀에 제 꿈은 무너졌습니다. 십 대의 어린 나이에 삶의 소망을 잃고 방황하다 결국 삶을 내려놓을 마음으로 한강대교 위에 섰습니다. 그런



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강물 위에 어머니의 얼굴이 환영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에 차마 뛰어 내리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죠. 그 후 1974년, 신촌에서 성경을 들고 가던 한 청년에게 무작정 다가가 성경 공부 방법을 물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네비게이트 선교회’를 만났습니다. 그곳 수양회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Q. 목회자로 사역하시다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신 과정도 무척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A. 한국에서 2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한 후, 안식년을 앞두고 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선교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우디는 기독교 박해가 심한 곳이라 두려움이 컸습니다. 6일간 금식 기도하며 뜻을 물었을 때, 주님은 과거 사고로 먼저 데려가신 형제들을 떠올리게 하시며 “네가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선교 훈련 중 갓 태어난 막내아들 모세 때문에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태어나기 전, 셋째 아들 요한이가 백일 만에 뇌종양 판정을 받고 1년 6개월의 사투 끝에 먼저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20일 뒤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아들이 모세였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말에 요한이를 잃은 상처가 컸던 저로서는 모세까지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이를 데려가신 분도, 모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유언장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2004년 여름, 저를 캐나다 원주민 마을로 인도하셨습니다.



Q. 캐나다 원주민 사역지를 처음 방문하셨을 때의 충격이 꽤 크셨다고요?

A. 네, 2004년 7월에 처음 방문한 ‘아하우젯’이라는 섬마을은 제가 상상하던 캐나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원주민들의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찌들어 술과 마약에 의존하는 사람들, 씻지도 못한 채 버짐이 핀 얼굴로 흐느적거리는 아이들을 보며 마치 필리핀의 빈민촌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송정미 씨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라는 찬양을 들으며 영영 울었습니다. 과거 백인 기독교인들이 세운 기숙사 학교(Residential School)에서 거친 학대를 당했던 그들의 깊은 상처를 알게 된 후,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 온 가족이 비자를 받고 캐나다로 건너가 본격적인 원주민 선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받은 빵을 나누고 홀로 사는 할머니들의 잔디를 깎으며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Respect) 것이었습니다. 백인 요리사들은 싼 재료로 음식을 만들라고 했지만, 저희 캠프에선 가장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 진심이 전달되자 원주민들은 “우리를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다”라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원주민 신학교를 통해 10년에 걸쳐 일꾼을 길러냈고, 그 결실로 재작년에 두 명의 원주민 제자가 졸업하여 저희와 함께 원주민 교회를 개척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Q. 우리 범어교회와는 어떤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은?

A. 이지훈 담임목사님이 과거 캐나다에 계실 때, 저희 아웃리치 사역 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이후 목사님을 통해 저희 가정이 범어 교회의 협력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범어교회의 뜨거운 중보기도와 정성 어린 후원은 제가 험한 원주민 마을을 누비는 가장 든든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 정리 **교회보팀**

Q. 선교사님이 펼치고 계신 원주민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A.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는 억압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2년 동안은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진심 어린 존중’과 ‘문화 사역’으로 다가갔습니다. 이화여대 무용과를 나온 아내와 자녀들이 팀을 꾸려 사물놀이 공연을 펼치고, 저는 한국에서 배워간 이발기로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주었습니다. 빵집에서 기부



기도 제목

- 1) **제자 사역의 결실** : 제이미와 코지 같은 원주민 제자들이 스스로 전도하고 교회를 지키는 영적 리더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 2) **사역의 지경** : 현재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4개 마을뿐 아니라, 더 많은 원주민 공동체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중보해 주세요.
- 3) **가족의 건강** : 저와 아내 송유순 선교사가 영육 간에 강건하여, 맡겨진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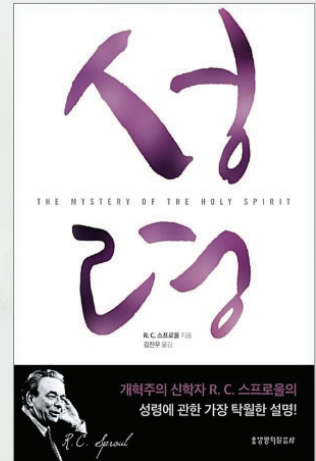
우리 같이 걸을까요?

산책(冊)

성령 (R.C.스프로울, 생명의말씀사, 2014)

성령은 인간의 언어로는 주로 ‘바람’에 비유된다. 하지만 막연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고도 친밀하게 우리 안에 거하신다. 신비롭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신다. 알 수 없는 힘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야 한다.

“우리는 성령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가장 사나운 바람보다도 강하다. 성령은 혼란에서 질서를, 추함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내신다. 그분은 죄에 물든 사람을 덕의 모범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성령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신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생명을 변화시키기도 하신다. 우리는 성령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미신과 왜곡에 빠지기 쉽다. 성령이 신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는 성경 말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본문 中



성령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 홍성사, 2020)

성령은 그리스도를 밝히시기 위해, 인간이 그분을 향하게 하시기 위해 존재하신다. 우리는 흔히들 은사와 보혜사로만 그분을 설명한다. 하지만 그분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도 인간의 머리와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쉽게 잊는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찾아오신다. 따라서 우리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고 느끼도록 인도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혐오하며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말이다.” 본문 中



5월의 범어

이 외에도 많은 행사가 지난 달에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pomo.net>



3일(주일) 3부 예배 시간에 귀한 한 생명이 주님의 자녀로 자
라길 소망하며 축복하는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1일(금) 저녁, 금요기도회 시간에 1·2·3·8교구, 새가족 교구
목자들이 참 목자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상반기 목자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9일(토)에 사회봉사위원회 탈북민 지원팀에서는 탈북민 성도
20명과 함께 경남 합천 생태공원과 영상테마파크를 다녀오며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토) 사회봉사위원회 장애인 나들이 지원팀은 경주 천년
숲 정원과 황리단길, 대릉원, 교촌 마을 일대의 나들이를 통해
장애인과 봉사자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누리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



21일(목)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실버위원회 주관으로
230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범어교회 경로잔치가 있었습니다.



25일(월) 경산 반석풋살장에서 제 19회 당회장배 기관별 풋살대회가 있었습니다.



30일(토) 미디어위원회 역사자료분과 주관으로 안동교회와 의성 주기철목사 수난기념관 역사선교지 탐방이 있었습니다.



29일(금) 오후 8시, 2층 예루살렘채플에서 장영일 원로목사를 강사로 성령강림절 연합집회가 있었습니다.



30일(토) 오전 10시에 지하1층 갈릴리채플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2026 새가족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31일(주일) 1·2·3부 예배가 온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온세대 연합예배로 진행되었습니다.

범어‘인(人)’의 얼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들

주의 날, 하나님의 집에 닿을 때마다 저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는
예배를 안내하시는 분들의 돕는 손길과 환대가 내 아버지의 집의 문을 활짝 여는듯이 살갑습니다.



범어범어(泛魚凡語)

“십자가의 자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위대한 하강의 자리이며, 죄인일 수 밖에 없는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부활의 자리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더와이즈 목상나눔

“기도하는 사람만이 넘어질 수 있으나 무너지지 않는다. 나의 최선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주일 설교 중

“가정을 위한 기도의 방향을 바꾸자. 기도의 수준을 높이자. 내 가정이 먼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 평강, 희락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구하자” 주일 설교 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주님 오늘도 주를 찾습니다. 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의 믿음소리도 다 들으시는 주님, 나직이 주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리딩지저스 목상기도

“인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종종 탄길로 가고 미끄러지고 넘어진다. 그러나 영원하신 팔로 붙잡히고, 구조되고 회복되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양육학교 중

범어동정(泛魚動靜)

한 달 동안 범어인의 상황과 이동

■ 처음 나온 아기



박이안 (박종우, 류지혜)



김은솔 (김희찬, 김승조)



류하랑 (류한, 문지민)

■ 결혼

- 안미경A 집사의 장남 이호중 군 : 5월 3일(일)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피오니홀

■ 출산

- 성슬기 성도(주영광 성도) 득녀 : 4월 21일(화)
- 이 선 집사(손승수 성도) 득남 : 4월 24일(금)
- 류화선 집사(황세홍 집사) 득남 : 5월 13일(수)
- 김지영G 성도(김태현 성도) 득남 : 5월 14일(목)

■ 전시회

- 이영철 안수집사 : 서양화 개인전 5월 5일(화)~10일(일) 대구문화예술회관 12전시실



6월 교회 행사 안내

- 7일(주일)~8일(월) : 민군연합대성회
- 14일(주일) : 실버위원회 주관예배(오후)
- 21일(주일) : 디모데청년회 주관예배(오후)
- 24일(수) : 권주로 선교사 선교보고(세네갈)
- 26일(금) : 120주년 초청설교 신성욱 교수
- 28일(주일) : 정기당회, 예사모 주관예배(오후)

6월 주일학교 행사 안내

- 13일(토) : 주교위 교사부흥회
- 21일(주일) : 유년부 도전홀리벨, 초등부 울러라 홀리벨, 소년부 찬양축제주일, 중등부 세계관특강, 고등부 신앙특강
- 22일(월)~24일(수) : 수성노회 교사강습회(대동교회)
- 27일(토) : 고등부 학원 앞 노방전도
- 28일(주일) : 유년부 열매잔치&전도축제

편집장 | 이영선C

부편집장 | 신규식, 여경진

편집위원 | 김동영, 김성애B, 김현성, 서정주
손명진, 이미경C, 이상진, 이창권
조성희A, 허윤정

사진 | 미디어위원회

디자인 | design **Jabez** STUDIO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범어교회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범어교회보 | 1986. 5. 25 창간

2026 범어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사진공모전

범어교회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을 사진이라는 시각적인 언어로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성도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음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전하고자 2026년 사진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접수 기간 | 2026년 7월 5일 ~ 8월 15일
- 촬영 시기 | 2025년 7월 1일~2026년 7월 4일에 촬영된 사진
- *가공되지 않은 무보정 사진



• **공모 주제** : 범어교회의 어제, 오늘, 내일

- **세부 주제** : 선택 또는 중복 출품 가능
 - 교회의 역사와 흔적(건물, 기록, 상징물)
 - 예배와 신앙의 순간(예배, 기도, 찬양)
 - 공동체의 얼굴(성도, 교제, 다음세대)
 - 섬김과 선교(지역사회, 봉사, 나눔)
 - 미래를 향한 범어교회(청년, 어린이, 비전적 장면)

• **참가 대상** : 범어교회 성도 누구나(초등학생 이상)

• 출품 규격 및 조건

- 1) 출품수 : 1인 2점
- 2) 파일 형식 : JPG 또는 PNG / 가공되지 않은 무보정 사진
- 3) 해상도 : 긴 축 기준 3,000pixel 이상 권장
- 4) 촬영 기기 : 제한 없음(DSLR, 미러리스, 스마트폰 가능)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QR코드를 촬영-구글폼으로 접수)
사진파일 업로드 + 작품명 + 설명(30자 내외)

• 심사 기준

- 1) 기준 : 주제 적합성(30%), 스토리와 메시지 전달력(30%), 완성도 및 창의성(20%), 공동체성 및 공감도(20%)
- 2) 심사위원 구성 : 담임목사, 미디어위원회 담당장로, 미디어위원회 사진팀, 사진 전문가, 다수의 성도 등

• 시상 계획

- 대상(1명) : 상장 및 부상(신세계 상품권 30만원)
- 최우수상(2명) : 상장 및 부상(신세계 상품권 20만원)
- 우수상(3명) : 상장 및 부상(신세계 상품권 10만원)
- 장려상(5명) : 상장 및 부상(신세계 상품권 5만원)
- 입선(50명) : 상장 및 부상
- 일반부(중등부 이상 : 30명) : 우물가 쿠폰 1만원
- 초등학생부(초1~초6 : 20명) : 편의점 상품권 1만원

• 결과 발표 및 전시

- 1) 결과 발표 : 교회 홈페이지 및 주보 공지(2026년 9월 중)
- 2) 전시 방식 : 한 달 동안 교회 로비에 전시, 온라인 갤러리(홈페이지, SNS) 등

• 문의 : 사진팀 팀장 | 이은영 집사 010-8907-2383

